

MONTHLY FOREST MAGAZINE

magazine 숲

Treasure
한 그루의 나무와
마주하는 법

Travel
긴 호흡, 느린 걸음으로 거니는
'마음이 머무는 숲'

Life & Nature
자연에 따르는 삶
'두메산골 겨울나기'

Place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자연을 담은 숲 속 교실
'한국통나무학교'

숲, 나무 그리고 인간

VOL. 03
DECEMBER
2014

12

ISSN 2383-6849





VOL. 03 DECEMBER. 2014

발행일	2014년 12월 4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편집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042.861.3133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김병구, 엄지민, 이대영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Cover Story

작은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룹니다.
바라만 보아도 든든한 나무와 숲은,
단순히 천연자연이 아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더없이 귀중한 문화자원입니다.

반짝이는 12월,
〈magazine 숲〉은
나무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CONTENTS

< Special >

Treasure 04
숲, 나무 그리고 인간
한 그루의 나무와 마주하는 법

Travel 06
정남진(正南津) 편백숲 우드랜드
긴 호흡, 느린 걸음으로 거니는 '마음이 머무는 숲'

Life & Nature 12
산림탄소순환마을 '파로호 느릅마을'
자연에 따르는 삶 '두메산골 겨울나기'

Place 16
한국통나무학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자연을 담은 숲 속 교실

Essay 20
이병률 시인의 감성 에세이
숲이 어디 있냐고 누군가 묻거든

People 22
〈산 그리고 사람〉 방송인 · 사진작가 이상벽
소멸되고 생성되는 자연… 사람이라고 다를까

Focus on 26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개혁, 이렇게 합니다!

Walk 28
춘천 도시숲 '공지천공원'
호수의 품 안에서 여유롭게 사뿐사뿐

Enjoy 32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해맞이 템플스테이

Camping 34
나가사키로 연말여행을 떠나볼까?

Green Tour 36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순백의 마음을 담아 피어나다

Green Table 40
우리 임산물 '곶감' 요리 레시피
겉은 쫄깃 속은 부드러운 겨울의 맛

Forest People 42
한솔나무병원 정호성 원장
나무 치료하러 왕진 갑니다

Culture 44
12월, 화려한 겨울 축제 한마당

SNS 46
산림청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News 48
이달의 산림청 소식





오랜 시간 버티고 선 나무의 역사와 정신,
그 시간의 흐름이 손끝을 타고 흘러 들어온다.
거친 듯 잔잔한 나무의 엷은 미소가 손바닥을 통해 번져간다.
나무란 이렇듯, 늘 가까이에서, 오감(五感)을 사용해야만
그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tree

한 그루의 나무와 마주하는 법



이야기와 함께 자라는 나무

나무는 인류의 오랜 벗이다. 몇 억년 된 나무화석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우리네 삶은 나무와 함께 한다. 한 생명이 탄생할 때 금줄에 솔가지가 걸리고, 평생을 나무와 벗 삼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땐 나무 관에 몸을 누인다.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또한 시골 동네 어귀엔 어김없이 당산나무가 있어 마을을 지켰고,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우는 소리를 내는 등 수호신 같은 나무도 부지기수다. 나무들마다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대변한다.

소중한 자원식물, 이로운 나무

나무는 인간에게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선물 한다. 예부터 연료와 건축 및 도구의 재료 측면에서 우리는 나무에 많이 의존했다. 심지어 1천 500년 동안 인류의 거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기록한 종이의 원료도 나무였다. 또한 나무로부터 얻는 임산물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왔다. 최근에는 이들 자원이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신약, 신소재 등으로 개발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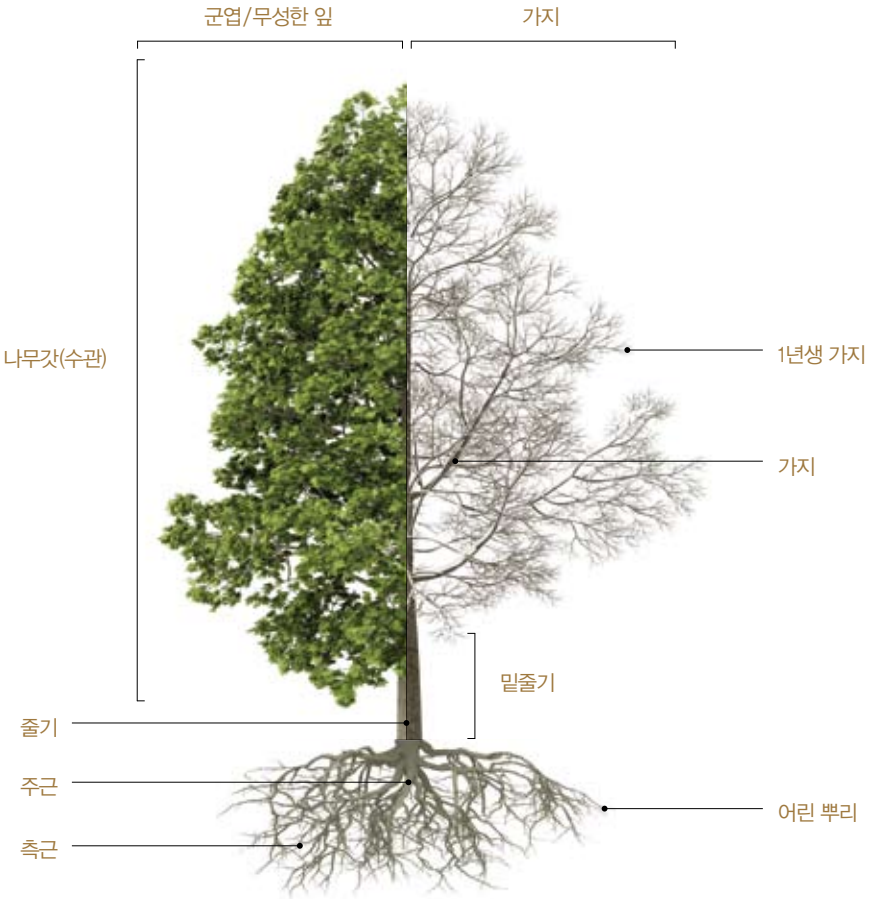
예술적 감흥을 불어넣는 나무

나무는 저마다 잎의 모양과 크기, 두께가 다르고, 잎맥, 잎 가장자리의 생김새와 선이 다르며 질감이 다르다. 싹이 움트고 짙은 초록으로 변해 다시 단풍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색 또한 다양하게 변화한다. 꽃봉오리가 맺혀 터지는 순간엔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나무는 예술적 감흥을 풍부하게 해주는 매체가 되어준다. 예술가들은 나무로부터 느낀 감흥을 작품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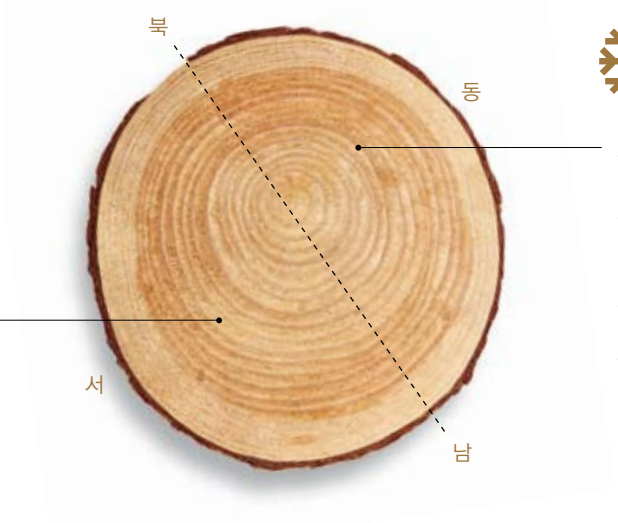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나무

숲의 모든 식물은 스스로 다양한 자연치유의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많은 치유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한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걸을 때 조화로움과 활력, 충만감을 느낀다. 도시화된 생활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무로부터 심신의 쾌적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면역력이 향상되며 궁극적으로 질병이 예방되어 건강을 증진시킨다. 숲

나무의 구조



나무의 나이는 나무의 역사



추재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면
세포는 거의 자라지 않고
색깔이 짙어집니다.
다시 봄이 돌아와
세포가 잘 자라기 시작하면
겨울 동안 자란 부분은 진하고 가는
둥근 띠가 되어 흔적이 남습니다.

춘재
봄과 여름에는 세포가 크게
자라고 색깔이 옅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정 남쪽으로 쭈욱 시선을 옮기다 보면,
산과 물이 아름다운 정남진 '전남 장흥'과 맞닿게 된다.
가는 곳마다 산이 병풍처럼 서 있는 이곳은 봄에는 제암산에 철쭉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천관산의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억불산 자락의 '편백숲 우드랜드'가 치유의 숲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쉼과 힐링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wood land

긴 호흡, 느린 걸음으로 거니는 '마음이 머무는 숲'

정남진(正南津) 편백숲 우드랜드

자박자박, 지루할 틈 없는 숲속 여행

쾌청한 숲과 푸른 하늘, 쪽빛바다가 넘실대는 고장 전남 장흥.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편백숲 우드랜드'는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독림가였던 손석연 선생이 1959년부터 1964년까지 120㏊에 편백과 삼나무 47만 그루를 심은 것이 기반이 된 우드랜드는 장흥군에서 33㏊를 사들여 '치유의 숲'으로 재탄생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말 한마리가 마차를 끄는 모양새로 관광객을 반긴다. 그 왼편으로는 정남진 특산물 직판장이 자리하고, 오른편에는 전남목공예센터인 '임올대'와 '억불대' 건물이 앞뒤로 나란히 서있다.







1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전국 최대의 편백림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에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센터, 야외 숲 체험시설 등
우수한 기반시설들을 갖추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주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전남목공예센터는 침체된 전남의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 전남을 공예요람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전국최대의 규모로 개관했다. 임올대 건물 1층에는 다양한 목재생산품을 관람, 구매할 수 있는 편백하우스가 자리하고, 2층에는 전라남도공예조합과 나무향기 카페가 자리한다. 억불대에서는 공예인들이 직접 가공 · 생산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하늘을 향해 정직하게 뻗어있는 편백숲으로 들어선다. 편백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수종이다. 숲에서는 왠지 모르게 따스함이 느껴지고, 풍경 따라 흐르는 그윽한 향기에 호흡마저 차분해진다. 숲의 아랫부분에는 황칠이 드문드문 군집을 이루고 있다.

느린 걸음으로 걷다보니, 잠깐 신발을 벗고 산책할 기회가 주어졌다. 숲길 위로 편백톱밥과 식물 매트가 깔린 산책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맨발로 걸어도 좋을 만큼 부드럽고 푹신한 길 덕분에 숲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우드랜드를 방문하면 꼭 들려야할 곳이 바로 '편백소금집'이다. 이곳은 편백의 피톤치드와 국내산 천일염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을



1. 억불대 내부 교육장 모습. 매주 토요일마다 목공예 기능장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 목재문화전시관에서는 우리가 가꾸고 지켜가야 할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편백소금집 반신욕방.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와 국내산 천일염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을 이용해 아토피, 천식, 고혈압, 우울증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이용해 아토피, 천식, 고혈압, 우울증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소금마사지방, 소금해독방, 소금호흡방, 황토방, 편백방, 소금동굴 등의 시설이 있다. 편백소금집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관리자의 말마따나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우드랜드에는 한옥을 비롯해 통나무집과 황토집이 있어 삼림욕을 겸해 숙박도 할 수 있다. 드라마 '대물'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통나무집 등 숙박시설은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한다.

햇살아래 열리는 작은 음악회

우드랜드 야외무대에서는 숲과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음악회가 종종 열리곤 한다. 지난 9월에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숲속음악회'에 관람객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클래식, 통기타, 요들송, 알펜호른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야외무대를 지나니, 우직한 나무 사이사이로 알록달록 귀여운 조각들이 시선을 끈다. 전남목공예센터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된 '木조각공원'이다. 원래는 산약초 단지였던 이곳은 철에 맞게 개화 식물을 적절히 식재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백설공주의 일곱 난장이 등 30여점이 배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인 셀카봉을 들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앞서가던 아이들 한 무리가 얼마못가 다시 멈춰 섰다. 세계건축-미니어처 공원으로, 편백으로 만든 이집트의 스핑크스, 네덜란드 풍차 등의 조형물이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다음 정착지는 목재문화전시관이다. 전시관을 이루는 거의 모든 것들이 편백으로 제작돼 있어서 시원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이곳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단순한 관람 위주의 전시관에서 친환경 생태학습공간, 체험전시실, 특별전시실, 기증전시실 등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또한 친환경 고을의 특성에 맞게 우리 고유 전통의 한옥은 물론 흙집, 목조주택 등 생태건축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건축체험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방이 자리한다. 나무로 만든 악기, 나무 블록, 다양한 서적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아이와 함께라면 족히 30~40분은 걸리는 친환경 학습공간이다.

그 옆으로 나무로 만든 곤충 모양의 피리들이 눈에 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직접 목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편백과 부재료(편백비즈, 기타 나무, 친환경 본드) 등을 사용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으며, 편백 톱밥을 주머니에 담아갈 수도 있다.

몸 안 가득 번지는 자연의 향기

톱밥 산책로 끝자락에는 우드랜드의 명물로 꼽히는 '비비에코토피아(풍욕장)'가 자리하고 있다. 한때 누드삼림욕장으로 소개되면서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던 이곳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가벼운 옷을 걸치고 풍욕(風浴)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체험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풍욕장 주변에 상록수를 심고 대나무로 차폐막을 설치해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더없이 자유로운 공간에 들어서니 세상과 단절된 듯하다.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다. 빽빽하게 들어찬



4





산림치유는 언급되고 있는 난치병이나
불치병 치료의 장소로서
산림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도시화된 생활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산림으로부터 심신의 쾌적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면역력이 향상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질병이 예방되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덕철 교수팀이 장흥 우드랜드가 질병 치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임상시험 결과, 전남의 따뜻한 기후와 갯벌, 천일염 등이 통합의학적 치료에 적용하면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5.**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어린 시절 동심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포토존이 마련됐다. **6.** 진한 국화향을 맡으며, 알록달록한 꽃길을 여유롭게 걸어본다.

나무 사이로 힘겹게 빠져나온 바람이 얼굴을 가볍게 치자, 송글송글 맺혔던 땀방울이 공기 중에 흩날린다.

풍욕장 곳곳에는 쉴 수 있는 의자와 해먹, 움막 등이 있어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다. 잠시 해먹에 몸을 뉘었다. 피부도 호흡을 해야 면역력도 강해지듯 사람들의 몸은 이곳에선 '숨 쉴 기회'를 얻고 간다.

풍욕장에서 억불산 정상까지는 나무데크로 이루어진 3,736m 길이의 '말레길'이 이어진다. '말레'는 대청 또는 마루를 일컫는 전라도 사투리로 이 길을 걷는 가족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장(場)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길은 여느 나무데크와 달리 계단이 없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등반할 수 있도록 정상까지 완만하게 설계되어 있다. 길섶에는 수십 종의 야생화가 지천이고, 음이온이 발생하는 폭포 등은 숲 체험을 하는 내내 다채로운 편백숲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해발 518m의 억불산에 오르자 장흥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멀리 보성군, 고흥군, 완도군이 지척이다.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산과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Information

이용안내
관람시간 :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설예약 안내 : www.jhwoodland.co.kr
*희망일로부터 61일(2개월) 전 밤 1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목공예체험교실 예약 안내
대상 : 유치원, 초중고생, 일반단체, 직장인 단체 등
장소 : 전라남도목공예센터 2층 교육장, 편백숲 우드랜드 목공예체험장, 강의실
문의 : 061-860-0735/061-864-0073

편백소금집
일요일~목요일 ⇒ 08시~24시(기본이용시간 5시간)
금요일~토요일 ⇒ 24시간 운영

비비에코토피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방



군인 반, 산이 반이라는 화천에 자리한 '파로호 느릅마을'.
겉으로 보기엔 한적하고 경치 좋은 평범한 산골마을이지만, 이곳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친환경에너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를 밑도는 이곳에서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것일까. 이들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일까.

破虜湖

자연에 따르는 삶 '두메산골 겨울나기'

산림탄소순환마을
파로호 느릅마을



1


2

착한 집, 착한 에너지, 착한 마을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화천은 군부대가 많은 남북 접경지역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다. 화천시외버스터미널에 내리자 앳된 얼굴의 군인들이 흔히 보인다. 거리에는 특이하고 생소한 '군인 백화점' 같은 가게들이 성업 중이다.

서둘러 군내 버스로 갈아타고 깊은 산속으로 굽이굽이 들어간다. 얼마나 달렸을까. 도로 아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호수 파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 멀리, 호수의 아름다움을 품은 우리의 종착지 '느릅마을'이 나타났다.

용화산이 병풍처럼 버티고 서있는 이 마을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활력이 넘친다. 그도 그럴 것이 농촌으로는 드물게 5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란다.

이종석 마을대표를 만난 곳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앞이다. 얼핏 작은 공장 같기도 한 건물 앞으로 나뭇가지와 통나무들이 크고 작은 섬을 이루며 쌓여있다. 건물 안에는 커다란 보일러와 온수 배관이 자리하고, 그 옆으로 파쇄기 한 대가 연신 목재칩을 토해내고 있다.

"우리 마을은 2011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산림탄소순환마을로 선정됐어요. 산림자원에서 발생하는 톱밥 등 에너지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죠. 강원도는 지천으로 산이고 나무잖아요. 기름 대신 나무 찌꺼기로 난방을 하면 좋겠다 싶었죠. 집들이 산 아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중앙난방 설비에도 적합하다 생각했고요."

느릅마을은 지역에서 벌채 중인 원목 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학교숲 가지치기를 하고 난 나뭇가지를 저렴한 값에 사오고 있다. 이것들을 파쇄기로 잘게 부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뭇가지 폐기물이 값진 연료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웃음) 마을 사람들 모두 수도꼭지만 돌리면 더운 물이 나오니 편하다고 해요. 마을에서 연간 사용하는 화석연료 비용 2억 원을 약 40% 가량 줄일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일부 주민은 정착할

1. 느릅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곧장 왼편으로 〈산림바이오매스센터〉가 보인다. 이곳에는 연간 360t의 목재펠릿과 칩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2.** 파쇄기로 잘게 부순 목재칩. 산림바이오매스센터 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목재펠릿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재라도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장치이다. **3.** 지난해 3월 29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초가 될 산림탄소순환마을 기공식이 열렸다. **4.**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 시설은 전체 134가구 중 78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3



4

곳을 찾다가 지역난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이곳에 집을 짓기도 했어요."

지역난방시설은 전체 134가구 가운데 78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에너지단열사업과 계량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노인회관을 비롯해 20채의 주택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했다. 열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사로운 어느 겨울날의 기록

센터를 벗어나 마을로 들어선다. '탁 탁 탁' 도리깨질로 콩타작 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온다. 처마 밑엔 겨울동안 먹을 무청 시래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바싹 말라가고 있다.

"시골에서는 시래기를 볏짚이나 줄로 차곡차곡 엮어놓기도 하고, 긴 머리카락을 빗은 것처럼 담장 위에 널어놓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오래 먹을 수 있지요. 보기엔 삐쩍 말랐어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웃음)"

마을을 지나 용화산 자락에 접어들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토종나무 묘목을 키우는 하우스 단지다. 산사태를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토종나무 묘목을 산림개발원에서 받아 마을 주민들이 키운 후, 다시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에서 15가구 정도가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 역시 묘목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다.

조금 더 길을 돌아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조성했다는 산림복합경영단지(17ha)로 이동했다. 이곳은 연구소에서 키우던 특용수, 산채나물, 약용수 등을 식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사람들은 식재 기술을 배우고, 산채나물을 관광객들이 직접 채집할 수 있도록 활용함으로써 마을 소득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박사님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가세요. 마을에 필요한 소득 작물을 기후에 맞게 컨설팅도 해주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물주고 키운 하우스재배 나물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자연에서 난 산채나물을 맛보면 좀 쓴 것 같다고 말씀들 하세요. 원래 몸에 좋은 게 쓴 법이잖아요.(웃음)"

나무를 닮아가는 사람들

느릅마을 사람들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며 살고 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땀으로 하루를 적시면서 노동의 소중함에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함이 이내 행복으로 돌아온다.



"봄에는 용화산 자락 어귀에서 자연 그대로 자라는 산채나물을 수확해요. 관광객들도 산채축제를 즐기러 많이들 찾아오죠. 여름에는 물 맑은 계곡에서 시원한 물 잔치가 펼쳐지고요. 친환경 블루베리 음악축제도 열립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면, 황금 들녘에서 청정환경의 상징 '메뚜기 가을축제'가 열린다. 8년 전부터 무농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이름 또한 '메뚜기쌀'이다. 추수철에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메뚜기 잡기 및 벼 베기 체험행사 외에도 허수아비 만들기, 재래식 탈곡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땅이 어는 겨울은 사실상 농사 휴가다. 물론 논밭에는 일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도 날이 따뜻할 때 몸 풀기 삼아 하면 된다. 그렇다고 길고 긴 겨울, 가만히 집에서 놀고먹지만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몸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다.

"겨울에는 청정호수 파로호에서 '바로파로 겨울축제'가 열려요. 산천어 낚시, 빙어 낚시, 얼음축구, 눈썰매 등을 즐길 수 있죠. 작년 겨울축제만하더라도 3만 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다녀갔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이색체험

느릅마을에는 다양한 캠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유아의 정서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숲 유치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수학여행. 그리고 멋진 잣나무 숲속에서 인디언들이 즐기던 티피텐트와 함께하는 야외 캠핑프로그램이 있으며,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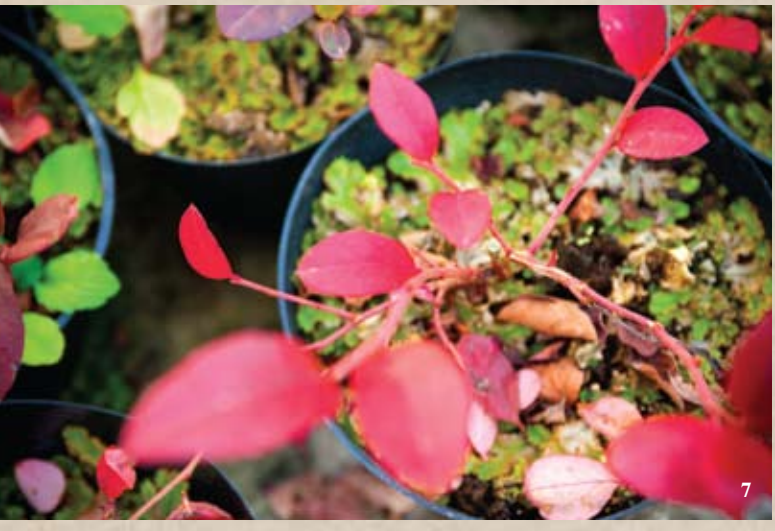
5. 마을 사람들은 텃밭에 배추와 파, 마늘, 목화 등을 재배하고 있다. **6.** 겨울철에는 겨울하늘 별자리 관측하기와 썰매타기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새해맞이 달집태우기와 산짐승 먹이주기 등 이색체험도 실시되고 있다. **7.** 블루베리 묘목. 마을에서 15가구 정도가 재배하고 있는 블루베리 역시 산림개발원에서 묘목을 받은 것으로, 여기서 난 블루베리로 식초와 쿠키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다.

분단과 분쟁의 현장에서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와 조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여름캠프도 마련되어 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옥학교가 자리하고 있어요. 한옥 짓는 법을 배우는 이곳은 소목반과 대목반으로 나뉘어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죠. 주말에 오시면 전통한옥모형 조립, 전통문화활동, 전통공예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 건너편 면사무소 쪽으로 쭉 내려가 본다. 황토펜션 앞마당엔 '월매'와 '춘향'이라는 귀여운 당나귀 두 마리가 낯선 이방인을 반긴다. 그리고 그 앞으로 아름다운 호수 파로호가 드넓게 펼쳐진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살을 부비고 사는 사람들. 그 구수하고 투박한 말투에 스르르 미소가 절로 나온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벗삼아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7

파로호 느릅마을

파로호 느릅마을은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농사와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산촌생태마을이자 에너지자립을 꿈꾸는 산림탄소순환마을이다.

위치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614-8
마을대표 : 010-6375-5515
홈페이지 : www.goparoho.com

목재펠릿 · 목재펠릿 보일러 문의

담당자 : 산림청 목재생산과 최서희 사무관
문의 : 042-481-1577
팩스 : 042-471-1446

KOREA LOG SCHOOL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자연을 담은 숲 속 교실

한국통나무학교

한국통나무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 이곳이 강원도 오지 산골임을 증명하듯 도로 재정비 공사가 한창이었다.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생각할 즈음 한국통나무학교 푯말이 반갑게 맞이했다. 한국통나무학교는 길게는 3주, 짧게는 3일 동안 손으로 직접 통나무집을 만드는 교육공간이다. 통나무집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합숙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운다. 전통만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선진 기술을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곳. 그리고 그것들을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한국통나무학교를 방문했다.



한국통나무학교의 강의실. 오전, 오후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은 이곳에 모여 이론 위주의 강의를 듣는다.



직접 연장을 들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김병천 교장. 매일 같이 그는 연장을 들고 나무를 다듬으며 학생들과 소통한다.



작업자가 전기톱을 가동시키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자
온 사방이 톱밥으로 흩날린다.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듯하다.



흠과 흠이 견고하게 물려있는 통나무집의 기본 골조를 완성한 후,
모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집짓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이 싸여있다.
많은 학생들이 거쳤을 장비들에 세월과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다.





실습장 한 편에 자리하고 있는 장비실로,
충분한 장비와 공구를 구비해뒀다.

"통나무학교를 통해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통나무를 만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찾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1. 한국통나무학교의 모든 건물은 통나무집으로 되어있다. 심지어 두 마리의 강아지 집조차 통나무집이다. **2.**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작업은 집중을 요한다. **3.** 실습에 사용되는 통나무

집짓기를 통한 자연과의 동화

꼬불꼬불 이어진 길을 타고 내려가니 위병이 근무하는 '위병소' 통나무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적이 드물어서인지, 사람이 반가워서인지 이곳의 보초병인 듯한 강아지가 연신 꼬리를 흔들며 짖어 댔다.

마침 실습장에서는 엔진톱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했다. 처음 마주한 한국통나무학교는 산골 깊은 적막 속의 요란한 '소리'로, '아! 이곳이 통나무학교구나'를 짐작하게 했다.

한국통나무학교는 김병천 교장이 1994년에 설립한 곳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통나무에 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곳은 통나무기술의 대가 앨런 매키(B.Allan Mackie)의 캐나다 통나무학교 한국 분교로, 캐나다 본교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자신의 집을 통나무로 짓고 싶거나, 직업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자연 속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등이 이곳의 교육대상이다.

"통나무집이란 나무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원목의 손상을 최소화한 집이에요. 원목의 힘과 균형을 이용하여 건축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인거죠. 그렇기에 통나무집은 매우 기술적이에요. 대충 나무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정확한 기술이 없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고두고 하자가 발생하는 집이 돼요.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다고 할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 그 차원을 높여 통나무를 다룸으로 굉장히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통나무집을 짓는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연에 깊이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짧고, 강렬하게 '열심히 배워가세요'

이곳 통나무학교의 교육철학은 단순하다. 〈열심히 배워가세요〉 외골수로 통나무집짓기에 전념하고, 정통하고자 하는 '장인'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함이었다. 그래서 일까. 한국통나무학교의 교육과정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다. 그야말로 '짧고', '굵게'였다.

교육과정으로는 초급과정과 프로과정이 있다.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과 정신을 익히는 과정인 '초급과정', 기초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20평 내외의 통나무집을 직접 지어가며 익히는 '프로과정'이 그것이다. 특히 프로과정은 직업으로 통나무를 배우고자 하는 경우, 아마추어이지만 보다 깊이 알고 싶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통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나이도 다양하고 목적 또한 다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짓기를 건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건축 일을 하기 위함보다 통나무 자체가 좋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교육 기간은 3주와 3일 간의 과정이 있으며, 매우 짧은 과정에 비해 모두들 열정적으로 배워가고 있다. "아침 9시에 시작된 수업은 저녁 9시가 되면 끝이 나요. 오전 시간에는 야외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저녁 시간에는 기술의 이론을 배우고 있죠. 하루의 수업이 끝나면 손수 지어 놓은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 수 있어요."

통나무학교에서는 많은 수강생을 바라지 않는다. 온 사방에 통나무집이 들어서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나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산골 오지까지 들어와서 교육을 받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나무를 통해 알게 되는 순수한 가치

깊은 산 속에 자리해서일까? 엔진 톱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곳은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다. 고요한 기분을 만끽하던 찰나, 이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엔진 톱소리가 정적을 깬다.

통나무학교의 건물은 서너 채의 숙식 공간, 강의실, 화장실, 사우나, 우체통까지 모두 통나무로 되어 있다. 심지어 강아지 집까지 통나무집이다. 특히 인상적인 곳은, 실습장 뒤편에 위치한 사우나로 교장과 학생들이 손수 만든 장소이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노곤함을 씻어 내릴 수 있는 장소로 제격이다.

수려한 산천이 제공하는 최적의 교육 장소에서 통나무집 짓기를 통해 순수한 노동의 기쁨을 얻고 있는 한국통나무학교. 통나무를 통해 많은 가치를 얻고 있는 김병천 교장은 말한다.

"통나무학교를 통해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통나무를 만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찾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내가 기대던 나무가, 내게 기대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슴

한국통나무학교

입교문의
Tel : 033-342-9596~7
Daum Cafe : http://cafe.daum.net/logschool
E-mail : logschool@hanmail.net


2


3

숲이 어디 있냐고 누군가 묻거든

이병률

시인 아저씨는 왜 숲이 좋아요?

숲은 '왜?' 라고 나한테 묻지 않아. 나한테 늘 이렇게 말하지. '잘 했어. 아주 잘 했어.' 라고.

잘한 일이 없는데도 잘했다고 말해줘요? 숲이?

잘한 일이 없을 때도, 조금 힘이 들 때도 숲한테 묻거든.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말해. '잘 했어. 아주 잘 했어.'

우리 할아버지 같으네요, 숲은. 근데 왜 나무들은 저마다 다르게 생겼나요?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너랑 똑같은 옷을 입고, 너랑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 너는 좋을까?

숲은 왜 혼자 멀리 떨어져 있나요?

숲은 혼자가 아니란다. 소중한 모두를 다 데리고 좋아하는 이곳으로 온 거란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대관령 양떼목장〉



시인 이병률

시인 이병률은 1967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좋은 사람들', '그날엔'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저서로는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찬란〉, 〈눈사람 여관〉 등과 여행산문집 〈끌림〉 등이 있으며, 제11회 현대시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 '시힘'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래도 숲은 가을이나 겨울엔 심심할 거 같아요.

심심하긴. 햇볕에 열매를 말려야지. 낙엽 부비는 소릴 모아서 음악을 만들어야지. 눈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야지. 동물들이 잠을 잘 수 있게 아늑하게 땅도 파줘야지. 심심할 틈이 있을까.

내 친구들은 숲이 뭔지 모른대요.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숲 이야기를 해줘봐. 그러면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두들 알게 될 거야. 하나의 나뭇잎이 물들면 옆에 있는 다른 나무가 물들듯이.

그럼 시인 아저씨는 여기서 혼자 살 수 있어요?

난 여기 살고 있는걸. 여기 살지만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말했지? 숲은 소중한 모두를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고.

그럼 숲은 놀고 싶을 땐 누구하고 놀아요?

바람하고 논단다.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바람이란다. 너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슴 쪽이 간질간질한 적 있지? 바람이 도착하면 나무는 간질간질해져서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바람한테 이렇게 묻는단다.

'나한테 말을 시킨 거야? 지금 나한테 춤을 추라고 한 거야? 아니면 나한테 좋아한다고 한 거야?'

LEE
SANG
BYUCK

소멸되고 생성되는 자연…
사람이라고 다를까

이상벽 방송인 · 사진작가

방송으로만 그를 접한 사람들은, 그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하고 놀란다.
게다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반문한다.
여기에 이어 그가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누빈다고 하면 또 다시 놀라워한다. 방송인 이상벽.
그는 본래 디자인을 공부한 예술학도였다. 하지만 졸업 후 그가 택한 진로는 디자이너가 아닌 언론인이었다.
10여 년의 기자생활을 거쳐, 이후 우리가 알던 최근 그 언젠가까지 그는 방송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상벽'이라는 이름 뒤에는 '사진작가'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자연의 사진을 들고, 그는 대중과 소통했다.
해지는 노을의 한 컷을 찍기 위해 바람과 물의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열매를 갖고 그는 우리를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일까. 그의 사진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말없는 미소 같다.

사진, 나의 또 다른 고향

우리에게는 국민 MC로 익숙하다. 처음 보는 누구라도 기탄없는 대화를 이끌어낼 그의 미소 때문인지, 방송인 이상벽 뒤에는 '가장 친근한 방송 진행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가 맡은 프로그램은 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그의 방송은 한 번에 터지는 베스트셀러라기보다 은근하고 꾸준하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였던 것이다.

2007년, 우리에게 방송인으로 익숙한 그가 돌연 사진작가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게 찍었겠지' 라는 선입견을 갖던 사람들도, 그의 사진을 보고 잠잠해졌다. 은은함과 잔잔함을 품고 있는 나무, 그리고 산. 보이지는 않지만 여운으로 느껴지는 바람까지. 이상벽 그의 사진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있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사진을 찍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지만, 2007년 개인전을 열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죠.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고 부전공으로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를 드는 게 제게는 낯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잊고 있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매우 친근해요. 방송을 오래 하면서도, 늘 사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이 아니면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없을 것 같더군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열정과 에너지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보자 싶었죠."




1


2

일을 하며, 오다가다 취미로 찍은 게 아니었다. 모든 일을 끊고 사진에만 몰두해 순간을 포착했다. 무려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갔다. 방송 최정상에 있던 그가 모든 것을 접고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상에 오른 자가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출발선에서 다시 몰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아닌가.

> “
> 사람이 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나 연인이 되고 가족이 되듯, 나무도 마찬가지에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진이라는 게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오직 몰두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변하고 길이가 변하죠. 원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일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사진에만 시간을 쏟았죠. 2년 동안요. 그 이후 개인전을 열게 된 거예요.”

자연에서 배우는 겸허함

전국을 돌아다녔다.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계획을 세워 움직였지만 때로는 느낌이 이끄는 발걸음도 신뢰했다. 그렇게 전국을 돌다 보니, 어느 새 필름이 수북하게 쌓였다. 디지털 카메라가 도처에 놓여있는 지금도 그는 필름 카메라를 고집한다. 오래된 중고 카메라, 니콘 FM2만을 어깨에 메고 다닌 것이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보다 필름카메라가 좋아요. 더 기다리게 되거든요. 시간을 기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나무를 흔들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죠. 햇빛과 바람과 나무가 절묘하게 일체를 이룬 순간,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의 이유를 발견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하죠. 순간을 기다리는 작업, 그것의 의미는 사실 과정에 있어요. 끝이 아닌 과정 중에 진짜가 숨어있는 거죠.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생, 사람들, 그리고 현재.”

그가 주로 나무를 찍는 이유는, 나무가 그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마땅한 장난감이 없었기에 나무로 자신만의 놀이도구를 만들고, 날이 추우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했다. 하루 종일 자연과 함께 한 유년 시절의 추억이 그를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토록 친근한 장난감이자 소재인 만큼 노모에게도 자신의 추억을 나누고 싶었다. 최근 그는 노모를 위해 지은 캡슐하우스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했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담은 향긋한 나무냄새를 나이 든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다.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어머니를 위해 난지도에 캡슐 하우스를 마련한 이상벽 씨. 작은 공간이지만 없는 게 없는 이 집에서 그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소재였다.

“바다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난지도에 집을 만들게 됐다”는 그는 “벽과 천장 모두 좋은 나무를 사용해 어머니가 고향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했다”고 전했다.

나무 안의 이야기, 당신 안에도 있다

그는 자연 앞에서 겸허해진다고 했다. 다른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해 살아간다. 좋은 양분을 있는 힘껏 머금어 잎과 열매를 맺고, 그 울창함으로 다른 이를 이롭게 한다. 과실(果實) 혹은 그늘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계절이 변해 이파리가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진 잎을 거름삼아 또 다시 성장을 준비한다. 이것이 나무다. 성장하고 소멸한 후 더 크게 성장하는.

"등산을 좋아해요.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이죠. 산을 오르다 보면 많은 나무와 돌을 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언젠가부터 하나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무와 돌, 그리고 흙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 오묘한 기분이 듭니다. 나무는 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바위 역시 나무의 도움으로 풍화작용을 견뎌내죠. 그들의 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지 않죠. 그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나무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역사의 모든 모습을 지켜봤겠지. 나무가 본 우리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요.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말없이 서있지만, 그렇기에 나무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나무의 이야기가 결국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쉼 없이 움직이는 나무처럼, 이상벽 그도 주어진 환경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젊은 진행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트렌드를 익히는 그. 방송이든 사진이든 이상벽은 시대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동행 안에서, 그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진다.



이상벽 방송인 · 사진작가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ROTC 중위로 예편하였고, 이후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방송에 입문한 후 KBS 〈아침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등 여러 인기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을 했다. 제25회 한국방송대상, 대통령상, 자랑스런홍익인상 등을 수상하였고, 저서로는 〈이상벽의 연예수첩〉 〈부리로 선 앵무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등이 있다.
2005년 방송을 잠시 접고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이상벽은 사진미술계에서 주목하는 신인 아닌 신인 작가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3



1. 2. 최근 노모를 위해 지었다는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캡슐하우스. 그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담은 향긋한 나무냄새를 나이 든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3.** 그가 찍은 나무 사진에는 '기다림'이 있다. 나무가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바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햇빛과 바람, 나무가 절묘하게 일체를 이루는 순간 그의 셔터가 눌러진다.

손톱 밑 가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개혁, 이렇게 합니다!

규제개혁. 실상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혁 중입니다.

글 **함태식**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산림규제 불편하셨죠?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풍력발전 회사 대표 김풍력 씨. 남들은 "기후변화다, 녹색에너지 개발이다" 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 반, 부러움 반 어린시선을 보내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외진출의 관건이 사업실적 부족이다.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강력한 규제와 그로인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꾸준한 실적을 쌓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산림청을 찾은 김풍력 씨.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나서야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미 산림청에서는 발 빠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는 총 393건. 대부분 67~70년대 나무심기를 강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규제들 덕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녹화를 일구어 냈지만, 산림복지, 산악관광, 산업입지 등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국민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발맞춘 규제 개선이 필요해졌다.

꿩 먹고 알 먹는 규제개혁

일부에서는 산림 규제완화로 인한 각종 난개발과 산림파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각 산업에 따라 규제의 기준을 달리하거나, 특구 지정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 중이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기존 허가면적 3ha로는 발전소 진입로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10ha로 개선,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림환경 파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녹색 에너지 이용 확대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경험의 축적으로 향후 해외 진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 그대로 규제개선 하나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산림청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모범적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의견 청취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개혁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더 살펴보자.

【 정부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 】

총 **393**건



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45건



부처 간 협업규제
20건

【 산림규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

1. 과도한 벌채 연령 규제완화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임가 소득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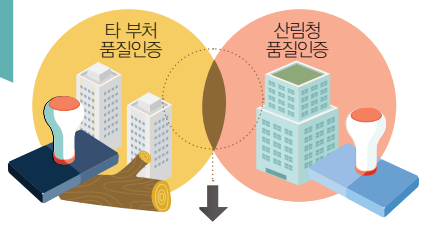


벌채 연령기준 **40~60**년

벌채 연령 기준완화로 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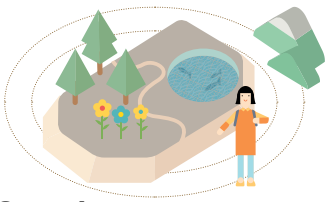
소나무 **50**➡**40**년 | 참나무 **50**➡**25**년 | 포플러류 **15**➡**3**년

2. 목재 품질인증 제도 간 중복 해소 기업부담 완화



상호인정 규정 마련

3. 유아 숲 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유아 대상 산림교육 수혜 확대



- 규모제한 **2** ha ➡ **1** ha 이상
- 설치제한 인근 **100** m 내 타 유아 숲 체험원 설치 제한 폐지

4.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인력요건 완화 산림복지 국민이용 및 혜택 활성화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학위 취득자 OR
  산림치유 관련 경력만 인정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인정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인증 유효기간 **3**년 ➡ **5**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호수의 품 안에서
여유롭게 사뿐사뿐

춘천 공지천 공원

CHUNCHEON GONGJICHEON PARK



춘천의 도심 속에는 여유로움이 숨 쉬고 있는 장소가 있다.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 한 채 호수가 나를 반기고, 숲길이 인사를 건네는 곳. 바로 공지천공원이다. 호반의 도시답게 호수를 옆에 끼고 도는 공원은 그야말로 고요 속의 낭만이랄까. 어딜 둘러보아도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가 풍경이 되어주고, 수면에 반사된 산자락이 자연이 그려낸 그림처럼 아름답다. 뜨거운 '청춘'과 아름다운 '낭만' 그리고 여유로운 '호수'가 떠오르는 춘천, 그곳에 자리한 공지천공원을 걸었다.



조각공원

조각공원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옹기종기 모여 도시락을 먹고 선생님과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조형물을 장애물 삼아 숨바꼭질도 한다.

"가끔 이곳 조각공원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곤 해요. 근처에 이렇게 근사한 조각공원이 있다는 것,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뛰어 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곳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작품은 '휴식'이다. 이름처럼 그저 바라보기만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앉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공원 내에 있는 물시계관 또한 놓치고 갈 수 없는 명소이다.

뜨락

공지천공원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뜨락'은 사계절 내내 봄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춘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온실 정원으로 예쁜 꽃, 파릇파릇한 녹색 식물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앉았다 쉬어갈 수 있는 나무의자와 물레방아가 또 다른 안락함을 선사한다. 친절하게 써내려간 식물의 이름표를 보며 식물 공부하기에 적격인 장소이다.

조각 속에서 뛰어놀다

온실 속에 동화되다







황금비늘테마거리

공지천공원에 가면 이외수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황금비늘테마거리'로 작가 이외수의 장편소설 '황금비늘'의 모티브인 곳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그의 소설, 시 구절이 적혀 있는 표지판이 걸음을 멈추게 한다.

『춘천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산 너머로 졸음에 겨운 구름들이 하품을 하며 돌아눕고, 눈부신 해의 비늘들이 호수 가득히 떨어져 내려 은빛 고기떼처럼 쓸려 다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작가의 친필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그의 작품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한다.

의암호반길

춘천이 바로 '호반의 도시구나!'라고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의암호반길이다. 의암호 옆으로 조성된 나무데크 위를 걸으면서 수면에 비친 반영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호수와 산이 그리고 자전거 길이 어우러져 무척 좋은 곳이에요. 물안개가 낀 날이면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저절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풍경만 바라보다 갑니다." 포근하게 내려앉은 낙엽 위를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잠시 길을 멈추고 호수를 풍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모두 소소한 풍경에 물이 들고 만다.

문학 속에 잠시 멈추다



낭만의 춘천 속에 잠기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해맞이 템플스테이

2014년 '갑오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 양띠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나를 위한 행복여행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나를 바꾸는 용기와 세상을 바꾸는 지혜는 내 안에 있다.
명상을 통해 올 한해를 돌아보고, 해돋이를 보며 마음 치유와 함께
새로운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유형별 템플스테이

- **수행형**
  수행자의 일상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예불, 108배, 참선 명상), 묵언 등 다양한 수행 문화를 체험해보고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

- **휴식형**
  전통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산사에서의 휴식 여행.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스님과의 차담, 산책, 명상 등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 **문화체험형**
  사찰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에 따라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사찰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친구,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5 해맞이 템플스테이

미황사 ● 새해타종, 해맞이 산행, 참회와 발원, 108염주 만들기 (1인 5만원)

다도해의 바람을 머금은 해남 미황사에서는 참선집중수행 프로그램인 '참사람의 향기' 템플스테이를 매월 1회 개최한다. 수행문답 이외 일체 묵언이며 금강스님의 지도로 한국 전통의 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 Tel. 061-533-3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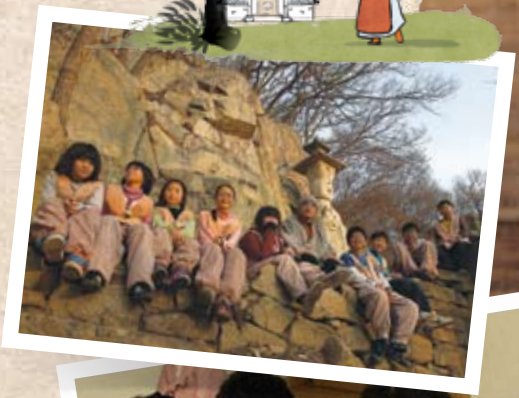
심원사 ● 108배, 소원지 쓰기, 탑돌이, 윷놀이, 타종체험, 떡국먹기, 일출 (성인 · 청소년 3만원 / 어린이 2만원)

'거북이 충전소'는 심원사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상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 안고 느긋한 거북이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한다.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상관없이 사찰이 주는 넉넉함과 편안함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17-56 / Tel. 054-931-6886)



서광사 ● 버킷리스 만들기, 탑돌이, 풍등 띄우기, 일출, 차담 (1인 5만원 / 가족 15만원)

깨달음의 한 수를 찾아가는 여행, 서광사의 '각수삼매(覺手三昧)' 템플스테이는 바둑과 불교의 전통수행법을 더해 태어났다. 고요한 자연을 벗 삼아 몸과 마음을 달래며 간이 바둑대회를 통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526 / Tel. 031-262-7903)



삼화사 ● 송년법회, 타종 및 떡국 먹기

수많은 소인문객이 머물다 간 무릉계곡, 두타산에 위치한 삼화사에서는 '당신도 자연입니다' 템플스테이가 기다리고 있다. 용추폭포, 하늘문, 신선바위를 지나는 산행 체험은 물론이고, 동해바다의 일출을 바라보며 낭만과 여유를 누려볼 수 있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584 / Tel. 033-534-7676)



월정사 ● 스님과의 차담, 소원지 쓰기, 비로봉 산행 (성인 6만원 / 학생 4만원)

팔각구층석탑에 걸린 달처럼 청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월정사에서 전나무숲길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한다. 삼독(탐욕, 진에, 우치)에 물든 이들에게 '비움'의 미덕을 알려주는 자연친화적 템플스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고 숲, 나무, 햇살, 바람을 느끼며 평온과 치유를 얻을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Tel. 033-339-6800) 숙

【 이런 것이 궁금해요. 】

Q. 외국인 친구가 참여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국에는 16개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영문 홈페이지 및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Tel. 02-2031-2000 / e-mail. support@templestay.com)

Q. 종교가 다른 경우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수 있나요?

템플스테이는 종교와 성별, 인종을 떠나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다소 참가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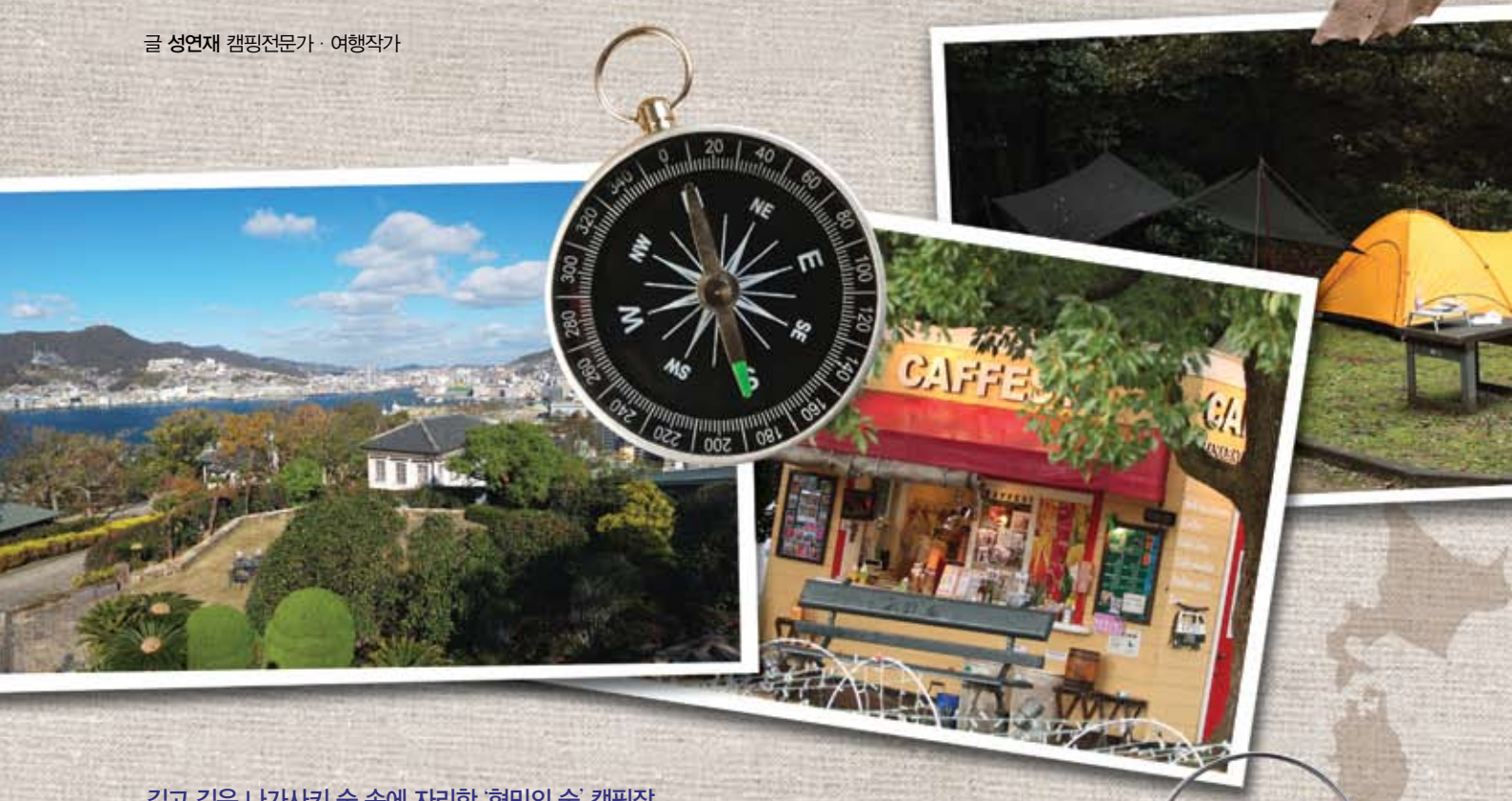
* 더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GASAKI CAMPING

나가사키로 연말여행을 떠나볼까?

해마다 이 맘쯤이면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연말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장기간 여유시간을 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는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알찬 여행이 가능하다. 연말연시, 풍부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나가사키로 떠나보자.

글 **성연재** 캠핑전문가 · 여행작가



깊고 깊은 나가사키 숲 속에 자리한 '현민의 숲' 캠핑장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20분 거리에 있는 일본 서쪽 지역 규슈의 나가사키. 나가사키의 곳곳은 이국적인 풍취가 물씬 풍긴다. 왜 그럴까. 바로 이곳이 서구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이다. 나가사키는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서양 선진 문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 결과 동서양의 문물이 혼합된 독특한 풍광이 자주 보이고 곳곳에 사연이 있는 유적 관광지가 많다. 짬뽕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다.

나가사키는 그림 같은 풍경의 캠핑장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하다. 한겨울에도 따스한 날씨가 이어져 즐겁게 캠핑할 수 있다. 나가사키에서 캠핑을 즐기려면 지형을 일단 잘 이해해야 한다. 나가사키의 베스트 캠핑장인 오사키 캠핑장은 일단 나가사키현 내부에 항아리 형태의 거대한 호수처럼 자리잡고 있는 오무라만 가에 위치하고 있다. 나가사키 메인 공항도 이 오무라만 한가운데에 있는 인공섬에 자리 잡고 있다.



캠핑 마니아라면 깊고 깊은 숲속의 '나가사키 현민의 숲 캠핑장'을 한번 둘러볼 만하다. 얼마나 깊은가 하면 1시간여를 줄곧 '정말 이런 길을 따라가다간 길이 뚝 끊길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들 정도로 깊은 산속 깊숙이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마침내 비밀에 숨겨져 있는 조용한 숲을 만나게 된다.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청정한 지역이다. 현민의 숲 캠핑장은 오토 캠프장과 일반 야영장으로 나눠져 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과 방갈로가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 캠핑, 방갈로, 텐트, 취사동 등도 갖췄다. 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도 있으며 텐트나 타프 등 다양한 물품들을 대여할 수 있다.





Let's Camping





Tip

가는 방법 : 나가사키까지 진에어가 매일 운행된다. 막상 혼자 렌트를 해서 찾아가기란 만만치 않다. 인터넷 동아리 '캠핑앤바베큐'에서는 매달 해외캠핑을 주최한다.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므로 한번 같이 조인해 해외캠핑에 참가해 보는 것이 좋다.

캠핑앤바베큐

http://cafe.naver.com/campingnb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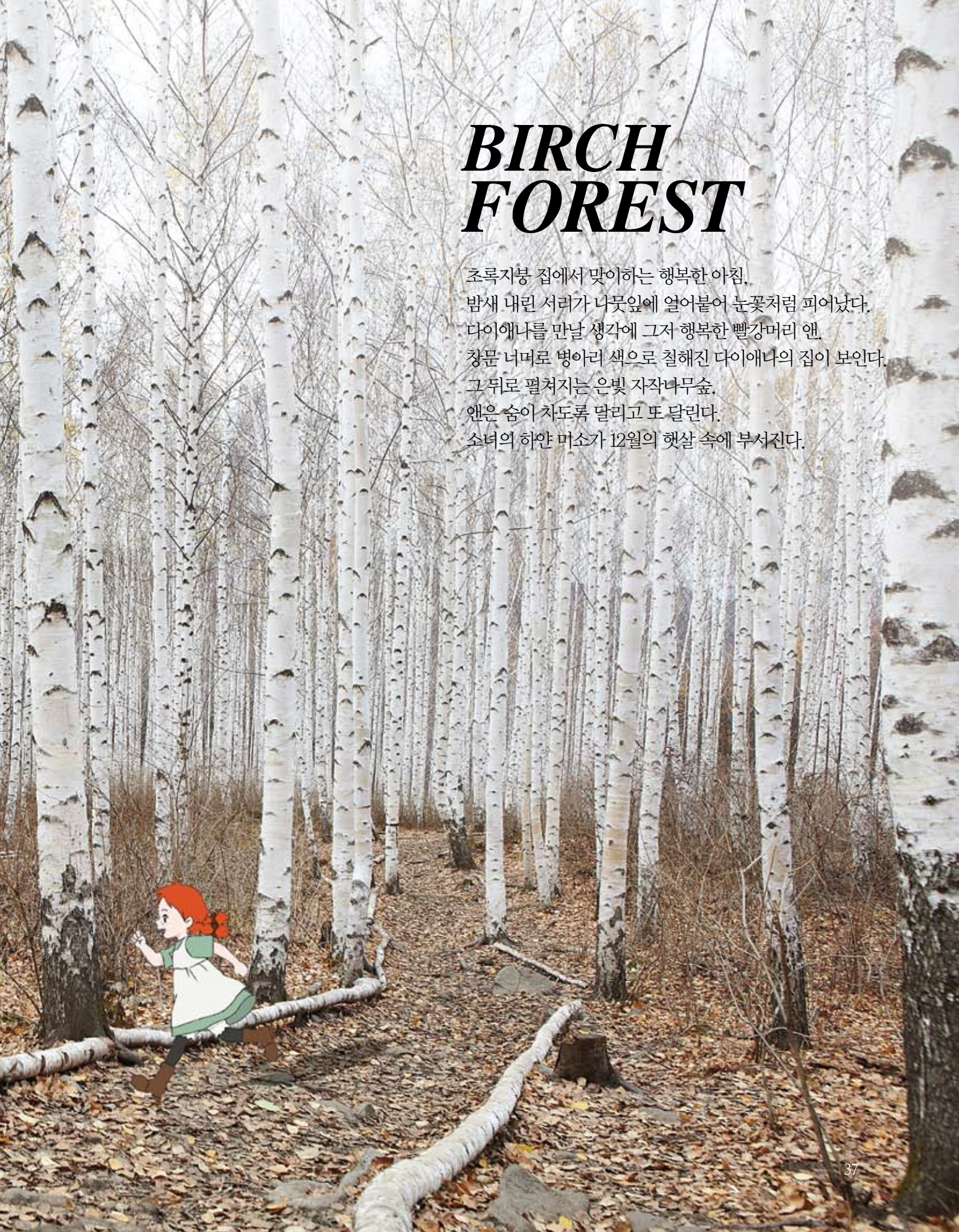
나가사키 먹을거리 2선

짬뽕이라고 하면 얼큰한 빨간 국물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하얀 국물의 나가사키 짬뽕이 나오면서 라면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 일본 사람들도 짬뽕을 한국말과 똑 같이 '짬뽕'이라 발음한다. 나가사키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은 사카이로인데, 이곳은 오후 늦게 가면 재료가 없어 오더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줄을 길게 서야 한다. 나가사키 간코도오리 인근에서 어떤 중국집을 가더라도 비슷한 맛을 낸다. 간코도오리에는 일본요리정식집 욧소우 본점(吉宗 本店, よっそう)이 눈에 띈다. 전차역 간코도리역서 내려서 하마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집의 가장 유명한 요리는 차왕무시(茶碗蒸し). 공기에 계란을 풀고 생선묵, 표고, 고기, 국물 따위를 넣고 공기째 찐 것으로 아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연출된다. 차왕무시 정식은 한국 돈으로 1만5천 원가량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순백의 마음을 담아 피어나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BIRCH FOREST

초록지붕 집에서 맞이하는 행복한 아침,
밤새 내린 서리가 나뭇잎에 얼어붙어 눈꽃처럼 피어났다.
다이애나를 만날 생각에 그저 행복한 빨강머리 앤.
창문 너머로 병아리 색으로 칠해진 다이애나의 집이 보인다.
그 뒤로 펼쳐지는 은빛 자작나무숲,
앤은 숨이 차도록 달리고 또 달린다.
소녀의 하얀 미소가 12월의 햇살 속에 부서진다.









시간을 달리는 숲

강원도 인제에는 자작나무 숲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응봉산 자락의 수리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원대리에 자리한다. 반짝이는 요정들의 날갯짓에 이끌려온 곳은, 원대리의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다.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굽이굽이 임도를 한없이 걷는다. 그래도 그다지 지루하지는 않다. 들판에는 말 몇 마리가 자유분방하게 뛰어 노닐고, 숲을 정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스친다. 길 중간 중간에 놓인 나무 의자에는 방문객들이 간식을 먹으며 쉼을 청하고 있다.

"여기서 자작나무숲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어서 빨리 하얀 숲이 보고 싶어 길을 묻는다. "한 20분 정도 더 가시면 되요. 이것 좀 드시고 가세요. 달고 맛있어요.(웃음)" 아주머니께서 건네준 사과 한 조각, 매실차 한 잔에 온 몸이 따스하게 데워진다.

어느덧 길 끝에 다다랐다. 조그만 공터 옆으로 꼭 붙은 두 사람의 모습을 한, 나무 조각에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 새겨져 있다. '아 여기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 선다. 아득한 꿈결처럼… 나 혼자서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하다. 정갈하면서 뽀얀 자작나무의 그 속살에 눈이 부신다. '파르르' 떨리는 금빛 이파리에 햇살마저 '파르르' 떨려온다.

어느새, 소설 '빨강머리 앤'의 낯익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주근깨 빼빼 마른 사랑스러운 소녀 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

-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원대리 산림감시초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 약 3.5km의 임도를 따라 1시간 정도 산허리를 따라 부드럽게 이어진 길은 남녀노소 모두 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 (※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도 자작나무숲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 75-22







곳도 이런 자작나무숲이었다. 엉뚱 발랄한 앤과 차분하고 상냥한 다이애나가 함께 뛰어 놀며 수다를 떨고, 우정을 쌓았던 은빛 숲. 두 소녀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어준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 신비한 풍경을 마주하고 한참을 서있었다.

겨울에 더 빛나는 강렬한 경건성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138ha에 이르는 임야에 자작나무 69만 본이 조림됐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25ha를 대중에게 개방했다. 이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40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자작나무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여 가구를 만들기에 좋고, 하얗고 윤이 나는 껍질은 불이 잘 붙어 불쏘시개로 유용하게 쓰였다. 자작나무라는 이름도 마른나무가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하여 붙여진 우리말 이름이다. 하얀 창호지가 겹겹이 둘러싸인 듯한 표피는 예로부터 종이 대용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적는데 사용했다.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일부도 자작나무라고 알려졌고, 경주 천마총 말 안장을 장식한 천마도의 재료도 자작나무 껍질이다.

4계절 아름다움을 뽐내는 하얀 순백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자작나무는 4~5월에 꽃이 핀다. 그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순백의 기다림이 고고한 분위기를 더한다.

숲은 자작나무 코스(0.9km), 치유 코스(1.5km), 탐험 코스(1.1km) 세 개의 산책코스로 나뉜다. 별 다른 구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눈길 가는대로 걸으면 된다.

숲속 음악회를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무대가 보인다. 그 옆으로 단단한 밧줄에 걸린 나무 그네와 짙은 향 가득한 인디언 집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선 유아숲체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화 같은 숲과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한다.

숲을 거닐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역시나 코스 중간 중간에 나무의자가 놓여 있다. 괜히 한 번 앉아보게 되고, 다시 한 번 풍경에 감탄하게 된다. 숲에는 자작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 속, 나무 위 등 숲 곳곳에서 친구들이 재잘대고 있다. 물이 고인 연못도 신비한 매력을 뽐낸다.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자 나무 그림자가 물속에 드리워진다.

고은의 시 〈자작나무숲으로 가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슈

COOKING

겉은 쫄깃 속은 부드러운 겨울의 맛

겉껍질의 쫄깃쫄깃한 식감에 비해, 그 속살은 보드랍고 입안에서 사~알살 녹는 '곶감'.
우는 아이도 달랜다는 곶감은 몸을 따뜻하게 보강하고 장과 위를 두텁게 하며,
카로틴과 비타민 C가 많아 만성기관지 등에 사용하고 고혈압환자들에게는
훌륭한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기나긴 겨울밤, 우리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도 좋은
'곶감레몬타르트'와 '곶감바나나스무디' 요리 레시피를 공개한다.

요리&스타일링 **박용일** yong style
어시스트 **남경현**



달콤한 부드러움

곶감바나나스무디

재료

곶감 4개, 바나나 2개, 우유 4컵, 아가베시럽 4큰술, 얼음 적당량

만드는 법

❶ 곶감은 꼭지를 떼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❷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4등분으로 자른다.
❸ 믹서에 1의 곶감과 2의 바나나, 우유, 아가베시럽, 얼음을 넣고 곱게 갈아 준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

곶감레몬타르트

3x1.5cm 원형틀 10개 분량정도

재료

- 타르트 틀 : 밀가루 120g, 버터 60g(이 외에 약간 버터가 필요함 – 틀에 발라주는 용도), 설탕 40g, 소금 약간, 달걀노른자 1개
- 필링 : 곶감 2개, 생크림 1/4컵, 우유 1/2컵, 설탕 1/4컵, 레몬 1개
- 크림치즈소스 : 크림치즈 4큰술, 생크림 2큰술, 우유 2큰술, 설탕 1큰술

만드는 법

❶ 볼에 체 친 밀가루와 소금, 설탕을 넣고 고루 섞는다.
❷ 1의 볼에 달걀노른자와 버터를 넣고 반죽한 후 냉장고에 30분정도 숙성한다.
❸ 타르트 틀에 붓으로 버터를 발라준 후 2의 반죽을 얇게 밀어 틀에 맞게 팬닝한다.
❹ 팬닝한 3의 틀을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20분정도 노릇하게 굽는다.
❺ 곶감은 꼭지를 떼어내고 잘게 다져준다.
❻ 레몬은 깨끗이 씻어 강판을 이용해 껍질을 벗겨 레몬필을 만들고 남은 레몬은 즙을 짠다.
❼ 냄비에 5의 곶감과 우유, 생크림, 설탕을 넣고 졸인 후 6의 레몬필과 레몬즙을 넣어 다시 한 번 끓여 식힌다.
❽ 준비된 또 다른 볼에 분량의 크림치즈소스를 넣고 휘핑기로 저어준다.
❾ 구운 4의 타르트 안에 6의 필링을 채우고 8의 크림치즈소스를 올린 후 6의 레몬필로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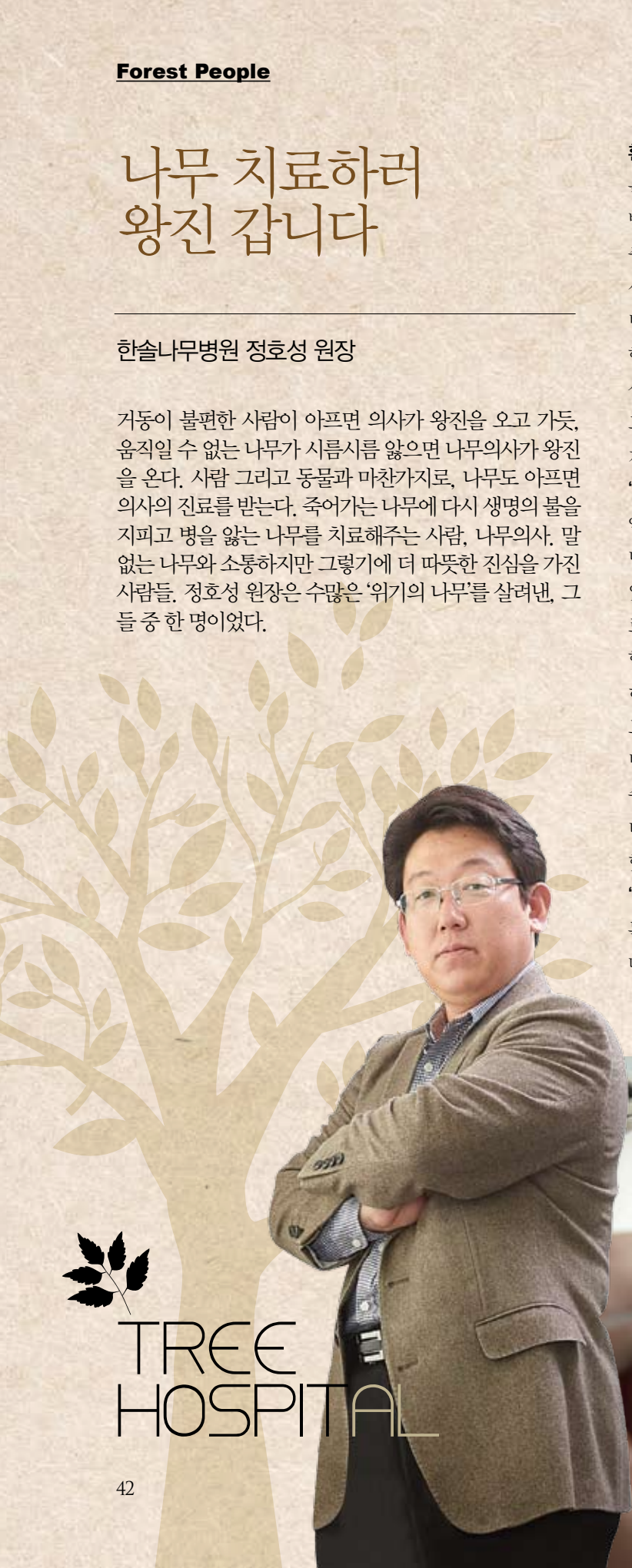




나무 치료하러 왕진 갑니다

한솔나무병원 정호성 원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왕진을 오고 가듯,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시름시름 앓으면 나무의사가 왕진을 온다. 사람 그리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아프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죽어가는 나무에 다시 생명의 불을 지피고 병을 앓는 나무를 치료해주는 사람, 나무의사. 말 없는 나무와 소통하지만 그렇기에 더 따뜻한 진심을 가진 사람들. 정호성 원장은 수많은 '위기의 나무'를 살려낸, 그들 중 한 명이었다.



TREE HOSPITAL

환경 변화면 나무도 아파요

올해로 경력 17년차의 나무의사. 정호성 한솔나무병원 원장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시름시름 앓는 나무들을 직접 돌보고 있다.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오염된 토양과 수분 환경에서 자라다가 생명에 위협을 받은 나무들을 '치료' 하는 것이다. 나무의사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혹은 도시개발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사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진료하고 진단해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한다. 피해 양상에 따라 치료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근본적인 피해원인을 제거하고 나무가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그의 일이다.

"나무가 병드는 증상은 매우 서서히 나타납니다. 갑자기 병으로 쇠약해 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예를 들어 충북 보은에 있던 백송은 병이 발생한 후 23년 만에 생을 다했습니다. 원인은 복토였어요. 흙을 너무 많이 덮어버린 것이죠. 나무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흙을 덮었는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천연기념물이었던 백송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은의 백송이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자 사람들은 각종 태풍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정밀한 진단 결과, 백송이 죽어간 이유는 날씨가 아닌 잘못된 관리 때문이었다. 흙을 덮더라도 나무가 숨 쉴 수 있는 여지는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나무는 그래요. 병에 걸려도 바로 증상을 보이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잎이 매우 푸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사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잎이 파랗다고 해도 이미 뿌리는 완전히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무를 살펴보고 주위 환경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면 나무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나무 치료, 실력보다 사랑

사람의 경우 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모두 다르듯 나무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보다 실력 있는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상을 떠나 현장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 원장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나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별도로 없는 상태였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해충학과 병리학, 토양학, 수목생리학 등 일반전공을 우선 이수한 후, 진단에 대한 부분은 실무로 익혀야 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산림교육원에서 주 5일 과정의 '수목보호기술자 입문과정'이 개설되어 1년에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모두 7개 대학이 '수목진단센터'로 지정됐죠. 이들 대학에서 생활권 수목의 진료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림 분야 전공자들은 졸업 후 취업 진로가 많지 않은데, 대학에서 나무의사 관련 커리큘럼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나무의사로서 사회로 진출하는 길이 조금이나마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나무를 살리는 것은 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정성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나무는 우리 생활에 꽤 깊숙이 들어와 있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살피고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방치되거나 약물에 지나치게 노출된다.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 후자다.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농약을 남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 시기에 단 한 번만 농약을 뿌려주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몰라 수시로 농약을 뿌리게 되고 이는 오히려 나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지금은 나무의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수의사가 점차 대중에게 익숙해졌듯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좋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과 함께 생물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병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그 미세한 차이를 캐치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무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많이 돌봐줘야 해요. 집에서 키우는 화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잘 자라잖아요. 결국 나무를 살리는 것은 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정성이죠."

앞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 나무들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치료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그.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아픈 나무에게 왕진을 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 했다.





Culture

화려한 겨울 축제 한마당





제주성산일출제

평화의 섬 제주도 성산에서 치러지는 일출제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자연적 가치와 풍광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자연축제이자,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원축제, 전통문화와 예술관광을 테마로 삼아 관광객들과 함께 흥과 멋을 나누는 문화관광축제이다. 신이 빚어 놓은 듯한 성산일출봉의 일출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장엄하다. 희망찬 새해의 기원과 소망을 비는 행사로 장엄한 일출 광경과 더불어 제주 관광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기간 : 2014.12.31 ~ 2015.01.01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장소 :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일원
안내 전화 : 064-760-4283
주최/주관 : 성산일출축제준비위원회/성산일출축제위원회

해맞이 부산축제

해맞이 부산축제는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산의 발전과 시민, 관광객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써, 매년 수십만의 해맞이 인파가 찾아오는 해양수도 부산의 특색을 살린 겨울철 대표 테마축제다. '시민의 종 타종식'에서는 시민서비스 부스운영, 멀티 미디어 아트쇼,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희망불꽃 행사가 있으며, '을미년 해맞이'에서는 소망풍선 나누기와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기간 : 2014.12.31 ~ 2015.01.0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5-18 (광복동2가)
장소 : 용두산 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
안내 전화 : 051-501-6051
주최/주관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대관령 눈꽃축제

'2015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 국민의 오랜 꿈이자 평창군민의 위대한 도전인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자축하는 승리의 축제로 더욱 더 풍부해진 즐길 거리와 색다를 테마별 체험 이벤트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로는 개막식 및 만설제, 눈꽃백일장, 주민 및 관광객 눈조각 경연대회, 눈꽃가요제, 황병산 사냥놀이, 감자 구워먹기 체험, 국제알몸마라톤대회가 열리며, 눈썰매, 이글루, 팽이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기간 : 2015.01.01 ~ 2015.01.11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61-123
장소 : 강원 평창군 횡계리 일대
안내 전화 : 033-335-3995
주최/주관 :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태백산 눈축제

환상의 새하얀 눈꽃세상이 민족의 영산 태백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광장에서는 세계 유명 눈조각가들과 국내조각가들이 선보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형 눈조각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상의 눈꽃터널, 눈 미끄럼틀, 스노우래프팅 등 눈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놀이동산과 다양한 테마 눈조각, 얼음조각 등으로 환상적인 설원의 풍경을 만든다. 황지연못 일대에서 펼쳐지는 빛과 얼음의 축제와 더불어 은하수와 루미나리에가 만드는 별빛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기간 : 2015.01.23 ~ 2015.02.01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4-31
장소 : 강원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 일원
안내 전화 : 033-550-2085
주최/주관 : 태백시/태백산눈축제위원회

보성차밭빛축제

2000년 밀레니엄 트리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차밭 대형트리 차와 소리의 고장을 알리고 양의 해를 맞아 양이 힘차게 달려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120만개의 화려한 LED전구를 이용한 화려한 은하수터널, 경관조명, 테마거리, 빛의 거리, 다양한 포토존, 다짐의 계단 등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눈꽃이 내리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새해의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소망카드 달기 체험행사 및 매주말 상설공연도 마련하여 따뜻하고 낭만적인 겨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간 : 2014.12.12(금) ~ 2015.01.25(일)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녹차로 617
장소 : 전남 보성군 봇재다원 등
안내 전화 : 061-850-5211~5214
주최/주관 : 보성군
점등 시간 : 일~목요일(18:00~22:00)
금, 토요일(18:00~24:00)
※ 단, 12.24(화)은 24:00까지
12.31(화)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점등



'들어주세요!'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툭' 하면 '톡' 나오는 산림청 SNS의 모든 것

FOREST STORY

트위터



김장철이 돌아왔어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치!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김장을 하고 있을까요? 김장 담그기, 떡 만들기, 고추장 & 된장 담그기 등 지역 특산물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마을 10곳을 소개합니다.

① 구수한 전통의 맛이 살아 숨쉬는 '이천 서경들마을'
②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맛 보러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
③ '한산모시', 맛으로 느끼는 '서천 동자북마을'
④ 매일매일 잔칫날 같은 '양양 송천떡마을'
⑤ 대추가 들어간 영양 간식 만드는 '밀양 평리마을'
⑥ 시간과 정성으로 만드는 달콤한 맛 체험 '담양 삼지내마을'
⑦ 가족을 위한 건강 먹거리 만들러 '괴산 둔율올갱이마을'
⑧ 김장철에 가장 바쁜 '청양 가파마을'
⑨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경주 세심마을'
⑩ 돔베고기와 함께 즐기는, 섬 김치 맛 '제주 명도암참살이마을'

페이스북



등산도 하산도 안전하게

산에 오르실 때 등산로에서 '비상구급함'을 보신 적이 있나요? 비상구급함에는 붕대와 식염수, 반창고와 일명 '빨간약'인 머큐로크롬 등 8종 77점의 약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등반 시 넘어지거나 다친 부상자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굳게 잠겨있는 비상구급함.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응급처치구급함은 산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등반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등산객 스스로 구급함 내에 있는 약품을 사용하여 응급처치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에 최초로 수락산 및 불암산 등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주요 산에 30여개로 설치를 늘려,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처음 설치했을 때는 비상구급함을 개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약품 도난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번호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면에 연락처(전화번호)를 표기해 필요시 휴대전화로 문의하면 비밀번호를 알 수 있고, 번호입력키를 누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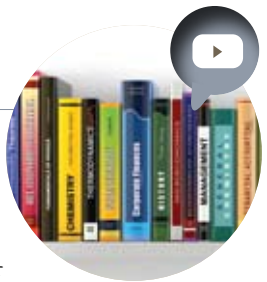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의 꽃,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들 크리스마스 장식 하셨나요? 올해 우리집 크리스마스 장식의 주인공은 '포인세티아(Poinsettia)'랍니다. 붉은 잎이 따뜻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꽃. 작은 화분 하나만 집안에 들여놓아도 금세 어디선가 '징글벨~ 징글벨~'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올 것만 같아요.

【 포인세티아 잘 기르는 방법 】

❶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부르니까 추위에 엄청 강할 것 같지만 이 아이의 고향은 멕시코! 최저 영상 10도 이상 되는 곳에 두고 키우세요.
❷ 밝은 햇빛을 좋아하지만, 밝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❸ 물주기는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세요.
❹ 포인세티아는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 서서히 꽃이 피기 시작해 한 겨울에는 붉은 꽃잎이 나옵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충분한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유튜브



도서가격 거품제거 등 '도서정가제'로 건강한 출판문화를 만듭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생기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는 물론 중소출판사 · 지역서점을 보호해 건강한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행의 목적이에요.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우선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 신간에만 적용됐던 도서정가제가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까지 확대됩니다.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정가를 낮추는 '재정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할인율이 달라져요. 그동안 정가의 19%(정가 10% 이내 가격할인 + 정가 9% 이내 간접할인)인 할인율이 15%로 축소됩니다.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당장의 할인율은 떨어지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갑자기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슈

Forest News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희망 보인다!

지난해 발생 218만 제거 완료, 올해 추가발생 5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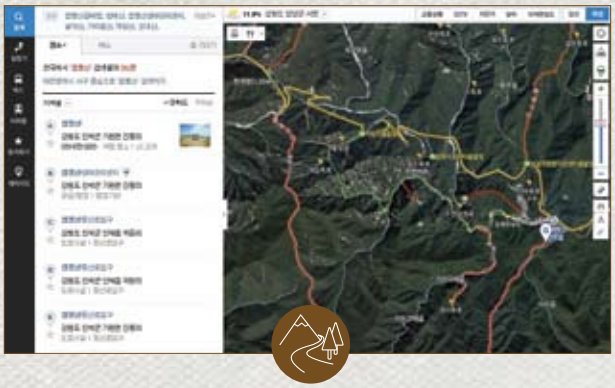
산림청은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중적인 방제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의 품질향상을 통해 향후 5년간 완전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한 소나무는 모두 218만 그루였으며 올해 발생량은 50% 수준인 109만 그루 정도로 예측됐다. 지난해 고사목은 이미 방제를 모두 마쳤고, 새로 발생한 피해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그동안의 방제 경험을 바탕으로 방제작업의 품질을 높이고 과학적 신기술 도입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완전히 방제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19년까지 5년간 완전방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 책임감리제 실시로 방제작업 품질향상 ▲ 적극적인 솎아베기로 예방적 방제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촬영 조사방법 도입 ▲ 우드그랩 등 기계화 방제 전환 ▲ 페로몬*을 이용한 매개충 유인 제거 ▲ 제거목은 펠릿, 목재로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에 포함시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자체는 다른 산림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방제작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방제 성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 소나무를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완전방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페로몬 : 다른 개체에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을 유도하는 화학물질



산행 전에 '등산로 폐쇄구간' 꼭 확인하세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통해 폐쇄 등산로 안내 서비스

산림청 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주요 산불 취약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각 기관별로 개방 · 폐쇄하는 등산로를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1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제되는 등산로 길이는 서울↔부산을 8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6,682km다. 일반 국민들은 해당 산이 위치한 관공서에 직접 전화 또는 문서로 확인하는 불편 없이 웹을 통해 색깔만으로 개방 ·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 중에서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2%(18건)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관계 치유 돕는 '제3회 목혼식 페스티벌' 연다

다양한 사연의 부부 참여해 리마인드 웨딩과 가구만들기 체험

생활 속 목재 사용의 확대와 목재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인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청은 '제3회 목혼식* 페스티벌'을 8일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박물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3회 목혼식 페스티벌'은 목재소비 촉진을 위해 산림청이 추진해온 'I LOVE WOOD 캠페인'의 대표 부대행사로 목재 효능 중 하나인 진정작용과 치유효과를 부부관계 개선에 적용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페스티벌에선 리마인드 웨딩과 함께 국내산 목재를 활용해 가구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생활 속 목재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국산 목재제품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목혼식 : 결혼5주년을 기념하여 부부가 목재로 된 선물을 주고받는 서양 풍습



휴양림 고객안전 권익 보장

산림청 · 권익위,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과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휴양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을 분석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등이다.



떫은감, 한 · 중 FTA 대비해 경쟁력 갖춘다

산림청, 14일 상주에서 '떫은감 산업 발전 현장간담회'개최

산림청은 떫은감 재배 · 가공 임업인을 대상으로 '떫은감 산업 발전 현장간담회'를 14일 상주감시험장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장 산림분야 소통 · 체감 현장 100℃ 달성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산림정책과 연구동향을 임업인에게 알려 현장에 활용토록 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국의 떫은감 재배 · 가공 임업인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 떫은감 산업 육성대책 ▲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 가공 · 유통사례 등을 소개하고 ▲ 곶감가공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thank you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따뜻한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둑꾸둑 곶감 익어가는 풍경'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이번 가을 손수 만드신 햇곶감 한 상자를 보내주신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 실에 매달아 말리는 일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힘든 일임을 알기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곶감 상자를 받고 느꼈던 진한 감동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강현숙 (인천시 연수구)

숲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지 왠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숲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숲 임산물 이야기'를 읽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숲으로부터 선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숲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숲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김기학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스님'에 관한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사찰음식을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선재스님처럼 사찰음식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매거진 숲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재스님의 음식에 대한 신념과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기사였습니다. ^^
김화영 (부산시 서구)

'시민과 함께 그린 숲'으로 소개된 구미 도시숲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숲이라 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자리 잡은 거대한 자연공간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이번 기사를 통해 도시숲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숲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숲이야말로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어떻게 가꾸고 주변과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숲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에서도 숲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야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사 기대합니다.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산림청의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니 무척 반갑네요. 미처 알지 못했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를 통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꼭 찾아볼 것을 은연 중 약속드려요. 앞으로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숲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권순만 (부산시 사하구)

사진의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고 크게 편집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산품 모음전은 매우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는 아홉 가지 임산물의 좋은 점을 상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남 정안밤과 충주밤은 제 61회 백제문화제에서 직접 구입해 먹었는데, 기사에 소개되어 있으니 그 맛이 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전달해주세요.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magazine 숲〉을 읽고 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여섯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www.ilovewood.or.kr

목재, 생활속의 자연
fine **wood,** fine **living**

I LOVE WOOD

C A M P A I G N



목재 환경이 주는 효과

건강한 신체

콘크리트 주택은 암을 유발하는 라돈 발생률 목조 주택의 1.6배

출산율 증가 • 암 발생률 저하
눈의 피로 저감 면역력 증가
독감,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예방
피톤치드, 음이온 발생

감성적인 교육환경

목재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오감을 통해 풍부한 감성 전달
뇌 활동 증가 • 스트레스 완화
학습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감 증가

쾌적한 주거환경

여름철 목조 주택의 적외선 반사율은 콘크리트 주택의 3배

생활소음 차단 • 진정효과로 숙면 유도
쾌적한 습도 • 온도조절
충격흡수로 안전사고 예방
화재 또는 지진발생시 건물붕괴 위험 감소

사회문제 완화

목재사용이 많은 양로노인시설은 적은 시설에 비해 심신불편 출현율 감소

정서적 안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목조시설 증가로 노인복지 향상
따스함이 느껴지는 공공시설물
목조 치유시설로 건강한 삶 향상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4205 FAX 042-471-1446 ilovewood@ilovewood.or.kr